

윤석열 대통령,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업을 첨단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0일 오후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220만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20만

원/80kg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기존의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내년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 수출 지원, 스마트 농업 등에 올해보다 5천억 원 이상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하고, 해외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리 농업이 IT, AI와 같은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 청년들이 대를 이어 가며 농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전대경 미등영농조합법인 대표(52세, 경기 평택) 등 8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농업인들이 대통령에게 '함께하는 농업·농촌 서포터즈 제1호'가 될 것을 제안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하자 농업인들도 크게 환호를 보내며 화답했다. 오늘 기념식에는 현장 농업인과 10개 농업인 단체 회장, 청년·여성 농업인, 지역 농업협동조합, 농업계 학생, 기업·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달곤·박덕홍·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 1,700여 명이 참석했고, 전국 8개 도의 기념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연결해 3,600여 명의 농업인이 함께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김동연지사, 중소기업인들 만나 “중소기업인과 함께 경제 역동성 살릴 것”

13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지역 중소기업인과의 소통의 장 마련



김동연 지사는 13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중소기업인 오찬간담회를 열고, 도내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노상철·고병헌·손인국 부회장, 김식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한영돈 경기북부지역회장, 김동현 뿌리산업위원장, 김중하 경기지역본부장 및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랫동안 경제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상당히 우려된다”며 “경기도는 우리 기업인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를 위해)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예산으로 냈다”며 “경기도는 '100조 투자유치' 목표 중 34조 원을 유치했다. 중소기업인들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신용조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켜내는 지역화폐 등 적극적인 경기 진작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2주 전에 중국

에 가서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중소기업인들도 같이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에 방문한) 라오닝성은 인구가 4천500만에 달한다. 그 큰 수요로 중소기업인들의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경기도) 예산을 조목조목 봤더니 중소기업, 스타트업, 돌봄 등 중소기업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늘렸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금과 같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경기도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2차 3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접경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 완화와 도시가스 공급 적극 지원 등을 건의했다. 도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도 중소기업 지위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경북, 대한민국 지방시대 열다!

이철우 도지사는 14일 구미 상모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송모제의 초헌관으로서 제를 올린 후 역사자료관 전정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장호 구미시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시민 등 1만여 명이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 106돌을 축하하는 마음을 나눴다.

경북도는 지난 4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경북도의회 박영서 부의장 발의)를 제정해 경상북도에서 출생, 성장한 전직 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셨기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5천 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살고 있다”

를 주제로 한 특강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 기획전 '1917. 11. 14.'를 열고 박정희 대통령 어록 8쪽 병풍(1977), 의전차량 등 27점을 전시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셨기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5천 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살고 있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국내 최초 완도해양치유센터
GRAND OPEN
 2023. 11. 24.(금)
 해양치유완도 완도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북부지역 소재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13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선(포항) 의원은 바이오산업연구원 자본금이 연구원 규모에 비해 너무 작아 자본금 증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연구원이 가장 잘하고 특화된 사업에 집중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연도별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이 작년 자료와 상이하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된 행정 자료를 지적함과 동시에 법적 의무사항인 경영공시의 내용 누락, 홈페이지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또한, 활용률이 떨어지는 관사의 매각 및 수기로 기록되는 출장차량일지, 주유 기록 등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자료의 전산화 대책 방안을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선정됨에 따라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며 햄프규제자유특구 신규사업자 유치 및 특구사업자 관리를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한,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입주기업이 공평하게 지원받고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도 및 시군 위탁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며 경북도와 소통하여 북부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위탁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강

조했다. 또한, 연구원에서 구축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직원 수보다 작음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연구원에 대한 애착이 없음을 질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고가 장비 구입 후 사용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장비 구축 및 장비 활용을 증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타기관과 상호 장비 대여 등 효율적인 공동활용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진업(포항) 의원은 매달 공개되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특정장소에서 과도하게 지출한 점을 지적하며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내역 등을 정확하게 공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감사에 필요한 신임 경영진에 대한 이력 등 기본 자료의 보완 요청과 함께 연구원의 높은 이직률을 지적하면서 임금 및 정주 지원 등의 개선 통한 조직 안정화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 의원이 당연직 이사에 참여하여 도의회의와 소통 강화를 통해 적재적소에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경영지원실의 안전한 업무태도를 지적하며 인사, 조직 전반에 확고한 책임감을 갖고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노력해 줄 것과 저조한 관사 사용 실적에 대해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감사자료 중 회의록 날짜가 전혀 맞지 않는 자료의 부실함과 이에 따른 자료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했고, 위탁사업 외에 다양한 공모사업 발굴을 통한 연구원 정체성 확립 및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정체성 및 위상 제고 노력 촉구



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연구원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신생 업체도 입주가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개선을 주문했고, 연구원의 역할 및 지원 재정절, 미래먹거리사업 발굴 등 기관장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오후에 진행된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근(김천) 의원은 행안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 달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종합 3등급, 청렴체감도 5등급 등으로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며, 도민들과 가장 가깝게 대면하여 사업을 하는 경북개발공사의 획기

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경북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3곳(경주, 안동, 울진)에 대한 참여로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시기의 개발공사의 역할을 당부했고, 특정기업이 지분율 100%를 가지고 운영되는 영덕풍력발전단지의 토지 사용 임대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경북도, 영덕군과의 협의를 통한 개발공사의 지분 참여, 지역 주민 참여 등으로 미래 수익사업 발굴 계기가 되길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노동이사제 추진에 대해 이사회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고, 도청신도시 패밀리파크 완공 시기 미이행에 대한 지적과 함께 코오롱하늘채 주출입로 변경 계획, 실내 골프

장 건축 추진상황, 장기 미분양 토지 현황, 구미 구평2지구 학교용지 진행상황, 인재개발원 예정지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개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김진업(포항) 의원은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과의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건수가 월등하게 여성기업에 편중되어 오해에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공평하게 배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개발공사의 봉사활동 등 사회적 공헌 활동을 높게 평가하면서 권장되고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이 7번의 계획변경으로 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계획에 맞는 사업 진행을 당부하며 2단계 사업 성공을 위한 의료,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 정주요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빈집 현황을 지적하며,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빈집 활용 공간 정비 사업 등 공공기업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신도시 1단계 준공 후 지자체에 이관한 부지에 대해 개발공사에서 잡초관리, 유지보수 등에 대한 민원을 관리하며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스마트도시사업처, 도청신도시산업단 등 조직원들이 모두 토목 직렬임을 언급하며 도시 기능뿐만 아니라 미관도 중요하기에 건축 직렬의 적절한 인력 배치를 제안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개발공사의 긍정적인 사업 추진 실적 및 ESG 경영, 각종 평가 우수 등 기관 운영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낮은 신입 직원 임용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 문제, 경영공시 관련 부채규모 미반영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공개입찰 등으로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업무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연락처 모바일 앱 공유, 글로벌 시대 개발공사의 영문명 개선, 실적이 전무하고 교육청과의 사업 협력 등을 주문했고, LH 부실공사로 인한 대대적인 감사 및 조사가 예상되는 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직원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직원 노력 개발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자기개발을 통한 공기업의 위상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시조성 및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와의 비교를 통해 경주동천지구, 경산화장품특화단지 등은 전신지중화가 미반영되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인 쾌적한 환경 제고는 거리가 멀다 질책하며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 위원장은 개발공사 사장의 취임점후 성과 등을 물으며, "개발공사가 흔들리던 경북도의 위상에도 문제"라며, 위수탁 사업 비율을 높여줄 것과 신규 직원을 활용한 획기적인 사업 모색 등을 주문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의회 행복위, 여성정책개발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북도립대 행정사무감사

여성정책개발원 경북의 특성을 담은 여성정책 개발의 필요성 강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는 11월 13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하 의원(비례)은 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용역외부 전문가 연구위원 없이 자체 연구원들로만 구성된 연구한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문위원회가 1년에 1번밖에 개최되지 않아 자문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기관 운영 및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임기철 의원(비례)은 경북이 성평등 지수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최하위 기록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경북만의 특성을 담은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강원도에서 현재 시행 중인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들에 대해 분만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제공하는 사업인 '응급산도 안심시스템' 제도를 언급하면서 경북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여성들이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을 만들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

무감사에서 황명강 의원(비례)은 과거에 비해 존재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경북학숙에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팀을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작년부터 청소, 경비 용역을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여 운영중이며, 총 공사비가 10억 이상 이 드는 경북학숙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용역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여러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강하게 지적하면서 직원들의 회계처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일수 의원(구미)은 매년 약10% 정도의 학생들이 중도이탈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가 학생들의 대한 지원이나 관심도가 떨어져 학생들이 이탈하는 게 아닌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올해 기부금 실적 이 작년에 비해 저조한 점과 홈페이지에 기부금 현황이 20년도 이후로 갱신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대외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총장님 취임 후 기록에 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관사를 매각하지 않은 채 대학의 예산으로 새로운 관사를 전세로 임차한 점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 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통합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과 선택, 교직원들의 고용 안정성 및 업무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이를 잘 해결하여 성공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부산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 전문! 4개과 전문의 결원도 장기화!

지속적 채용공고 통해 충원 노력하겠다는 답변 외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제317회 정례회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사 부족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의사충원을 못하고 있는 부산의료원을 질타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의료원 의사직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61명에 현원이 57명으로, 현원이 네 명이나 모자란다."라며, "부산의료원의 이러한 문제는, 퇴사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장기화되고 있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서 분석 결과, 우선 감염내과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충원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대체 몇 년도부터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었는지를 따로 조사해보니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딱 1년 동안 한 명이 있었던 적을 제외하고는, 부산의료원에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었던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감염병 관리의 중요도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부산의료원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지역주민의 공익진료와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사업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에 본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퇴직의사 매칭사업인 '공공의료기관과 퇴직의사 간 매칭사업'을 활용하여 퇴직 감염내과 전문의를 모셔오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종환 의원은 "또한, 감염내과 외에 의사직 정원 대비 현원 부족분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의료원 홈페이지 채용정보를 확인해본바, 현재 진행 중인 채용공고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1



명,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신경외과 전문의 1명, ▲외과 전문의 1명까지 총 4명임을 파악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소화기내과의 경우 2021년도에 다섯 명이던 것이 2022년도에 네 명, 2023년도 현재는 세 명으로 줄었는데도 아직 충원이 되지 못하고 있고, ▲재활의학과와 의 경우, 2021년도에 두 명이던 것이 22년도에 한 명으로 줄어든 이후 현재까지 결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아직 충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0년도에 세워진 것이 2021년도에 두 명이던 이후, 현재는 단 한 명에 머물고 있는데 여전히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신경외과 등의 결원 장기화도 함께 질타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부산의료원의 의사부족 문제가 만성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한 이종환 의원은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부산시의회도 함께 머리를 맞대나가겠다. 지속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충원에 노력하겠다는 답변 외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시의회에 보고해줄 것 요청된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김희태/기자

대구시의회,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경제환경위원회, 2023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1월 14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공단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 대덕승마장 경영악화,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복합학신센터 개관 지연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확충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날 감사에서 공단 내 안전사고 문제, 대덕승마장 활성화, 공단 통합 후 제기된 문제, 나드리콜 운영, 각종 추진사업에 지연 문제 등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확충을 요청했다.

이태순 위원장(달서구4)은 지난 9월 발생한 환경자원사업소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고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한 후, 사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종필 의원(구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덕승마장 운영 관련 문제에 대해 개선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대덕승마장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병문 의원(북구4)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통합 후 경영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요청했고, 최근 공단에서 관리하는 약취배출시설에 대한 약취관련 민원의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대구공공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범물근린공원주차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한 후, 대구-군위의 나드리콜 통합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공성과 시민 편의 증진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 입주지원 정책 추진 현황 등을 확인했고, 나드리콜 대기 시간 문제, 유개소강장 연체 임대료 수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기훈 의원(동구3)은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과 대구복합학신센터 수탁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더 적극 청취해 사업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대선 (112)	문 화 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대선 (113)	부 동 산 부:대선 (117)
	경 제 부:대선 (114)	요 케 이 언 부:대선 (118)
	스 포 츠 부:대선 (115)	지 방 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농업기술원 존재 이유 상기



2023 행정감사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 위해 노력할 것 당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3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역할에 대해 상기시키며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개발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김판수·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위원과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은 특히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 농업기술원의 역할 및 존재 이유를 재조명한 것이 이목을 끌었다.

강태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농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김판수 위원(더불어민주

당, 군포4)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이 5년간 역임하는 동안 농가 소득 기여에 대하여 질의하며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원장의 역할을 상기 시킴으로써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도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확장시킬 것을 주문했다.

서광범 위원(국민의힘, 여주1)과 이오수 위원(국민의힘, 수원9)은 사이버식물병원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과 최만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도시민의 힐링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농업의 확대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담당 부서를 일원화하고, 양성된 도시농업 전문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취업 연계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품종 육성·개발, 농기계 교육·실습, 병충해 예방·진단 등 일반 농가에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에 격려를 보낸다”며, “경기도농업기술원을 통해 많은 농가에서 힘을 얻고 있는 만큼 더 나아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배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 고양에서 천체관측 프로그램 ‘별 볼 일 있는 화전 노을여행’ 개최

고양시 화전동, 항공대 학생들과 함께하는 천체관측 프로그램 개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11월 15일과 18일 고양시 화전동 복지회관 내 작은도서관 옥상에서 ‘별 볼 일 있는 화전 노을여행’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3년 경기도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지난 9월 개최된 ‘2023 고양미래직업페스티벌’과 이어지는 화전동의 지역 콘텐츠다.

화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한국항공대학교가 함께 기획해 운영하며, 초등학교 3~4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천체관측 체험 프로그램을 ‘노을 속 해님 관측’과 ‘가을밤 행성관측’으로 각각 오후 4시, 오후 6시에 2시간씩 두 차례 나눠서 진행한다.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한국항공대 천체동아리에서는 ▲천체 이론교육 ▲태

양계 레이스 보드게임 ▲태양계 키링만들기 ▲해님관측 ▲행성 및 성단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외에도 이번 행사를 위해 자체 제작한 태양계 레이스 보드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화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화전역 인근 화랑로 일대의 상가와 연합해 참가자들에게 보상 쿠폰인 ‘화전사랑상품권’을 배부, ‘미래로 페스티벌 화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에이치스토리 블로그 및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지난 미래직업페스티벌에 이어 ‘별 볼 일 있는 화전 노을여행’을 통해 주민들과 학



생들이 상생협력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교육관광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화재발생이 많은 만큼 화재경보기기 일반주택에 보급 필요”

화재발생이 많은 만큼 화재경보기기 일반 주택에도 보급할 것을 건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갔다.

박명숙 의원은 화재경보기기 보급 대상의 확대, 구급차의 증차, 외국인 소방안전 교육의 강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명숙 의원은 “수원남부소방서

관할 구역 내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1일 평균 6.9건으로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화재경보기기의 보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3만 명이 넘었는데 언어의 문제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에 소홀하지 않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박명숙 의원 “수원남부소방서의 경우 관할 지역내 주민이 많아 구급차량이 1일 평균 132건 출동하는데 구급차와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도의회 안행위 의원님들과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으며,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연마스크를 전통시장에 비치할 때 분산 배포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남한산성 무료셔틀버스노선 이용객 확대 및 안전성, 청결상태 확보 방안” 제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한산성 무료셔틀버스 운행의 탑승객 저조를 지적하며, 노선 추가 및 버스 청결상태 개선을 주장했다.

윤충식 의원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한산성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산성 내 주차장 혼잡 방지 및 탐방객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토·일, 공휴일에 운행하며 21인승 버스 4대가 운영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21년부터 3년간 버스 한 대당 평균 탑승 인원은 6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저조한 탑승률에 대한 운영 문제점을 해결하여 탑승률 향

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김천광 소장은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선을 확인하여 도민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금의 동쪽 노선보다 탐방객이 많이 찾는 새로운 노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안전 운행과 버스 내 청결상태 개선에도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경기투어패스 운영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언급하며 “도민이 원하는 가맹점을 추가하고, 어르신 및 사회적약자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GH, 우수중소기업기술 적극활용” 촉구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특허기술 및 신제품 성장 발전시키는 인큐베이터의 역할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이나 장애인·여성기업의 특허기술 및 제품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다른 공사의 우수한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도내 많은 중소기업이 특허기술이나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판로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LH가 건축하는 다양한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제안 플랫폼’을 구축하고, 매년 중소기업 제품의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LH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나 여성, 장애인 기업의 물품구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지원하는 경기도 조례나 국가 법령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특허제품과 우수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LH가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배려 없는 ‘사전협의’에 의한 학교 배정 문제점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

상으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수학교의 배정 절차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시행령 근거에 따라 진행

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다.

조성환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정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특수학교 입학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학생들이 거주지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통학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문제점을 피력했다.

또한, “학교정원에 비해 희망자가 많은 상황에서 학교정원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특수운영교육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협의에 의해 선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교를 지망해도 희망이 없다고 언지를 주고, 특

수학생들의 희망과 달리 사전에 지원학교를 조율하는 사태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장래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그 중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특수학교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특수학교의 수도 늘리거나 복합특수학교 증설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확보 등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과 복합특수학교를 위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부모들이 참석하는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수원수목원에 기부자 명패 걸어놓는 '희망나무' 설치

수원시, '수원수목원 기부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수원수목원에 수목·시설물 등을 기부한 시민·기관과 수원수목원 평생회원의 명패를 걸어놓는 '희망나무'가 일월수목원에 설치됐다. 수원시는 14일 일월수목원에서 '수원수목원 기부자의 날' 기념행사를 열

고, 기부자와 평생회원들에게 기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기념사 이날 기념행사는 희망나무 제막식, 기부 품목에 희망메시지가 담긴 명패 달기, 탄소중립 실현 희망나무 심기 등으로 이어졌다. 일월수목원 방문자센터 외벽에 설치된 희망나무는 기부자·평생회원 예우 공간이다.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수원수목원의 밝은 미래를 그려간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나무다. 희망나무에는 명패를 설치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그린트러스트를 비롯한 기관, 시민 기부자, 평생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부자들은 숲정원에 심은 기부 수목(참나무·목련)과 숲정원·생태관찰

원에 설치한 등외자·평상에 이들과 희망 메시지를 새긴 명패를 달았다. 희망메시지는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수원수목원 함께 해요' '우리 손으로 만든 정원, 우리가 가꾸어 갑니다' 등이다. (주)청록환경생태연구소에서 기부한 당단풍나무·졸참나무 등 수목 14종 88주를 수원수에 심는 '탄소중립 실현 희망나무 심기'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수목원은 지난 5월 개장한 후 6개월 동안 관람객 40여만 명을 맞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수원수목원을 사랑해 주시고, 수목과 시설물을 기부해 주신 분들과 평생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사랑을 바탕으로 수원수목원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상/기자

신상진 시장,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추진 공식 발표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시청 한 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공식화했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 방식으로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개월여 동안 진행된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탁운영 방식이 의료원의 현재 위치에서 회복의 수준을 넘어 변혁의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작년 7월 신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들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1.9%가, 7월 시민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 설문조사에서는 76.6%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찬성했다. 신 시장은 "의료원은 개원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최소 2.2건에서 최대 5.7건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마저도 급성 총수염이나 골절 같은 일반 및 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네 병·의원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시장은 지방의료원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꼽았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의료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족과 지인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받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응답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권장하지 않는 이유'의 81.9%가 '진료와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의료원은 재개원 수준의 강력한 변혁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김범상/기자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해움·새들 제2기 입주 작가 모집

11월 24일까지 접수...입주작가에게 작업공간·활동 실비 지원

고양특례시가 시각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창작공간 '해움'과 '새들'의 제2기 입주작가를 11월 24일까지 모집한다. 고양특례시가 운영하는 예술 창작공간(레지던시)인 해움과 새들에서는 2022년부터 1기 입주작가들이 시민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여 왔다. 1기 입주작가 13인이 오는 12월 입주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신규 입주작가를 모집하고 있다. 국내 시각예술작가라면 누구나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모집 조건은 창작 공간과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장항동 일산호수공원 내 위치한 도심형 창작 공간 '해움'은 청년작가와 고양시 활동 작가를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해움은 ▲일반(시각예술 전 분야) ▲활동(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두 분야에서 각각 6명, 3명의 입주 작가를 선발한다. '활동형'으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해움·새들 2기 입주작가 모집공고 @ haeum_saedeul 2023.NOV.09. - NOV.24.

14일 기자회견서 신뢰 회복 통해 선도적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 혁신적 탈바꿈 밝혀

신상진 시장은 14일 시청 한 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공식화했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 방식으로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개월여 동안 진행된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탁운영 방식이 의료원의 현재 위치에서 회복의 수준을 넘어 변혁의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작년 7월 신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들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1.9%가, 7월 시민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 설문조사에서는 76.6%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찬성했다. 신 시장은 "의료원은 개원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최소 2.2건에서 최대 5.7건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마저도 급성 총수염이나 골절 같은 일반 및 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네 병·의원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시장은 지방의료원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꼽았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의료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족과 지인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받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응답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권장하지 않는 이유'의 81.9%가 '진료와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의료원은 재개원 수준의 강력한 변혁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보타닉가든 화성' 시민계획단 대상 여울공원 전시온실 설계 당선작 설명회 개최



화성시가 14일 동탄출장소 회의실에서 '보타닉가든 화성' 시민계획단을 대상으로 '여울공원 전시온실'의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울공원 전시온실은 시에서 역점 추진 중인 '보타닉가든 화성'의 엔지니어링 시설로, 다양한 기후대의 식물 전시 관람은 물론 체험·교육·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연면적 8000m² 규모의 사계절 식물 복합 문화공간이다.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 설계 당선작 소개 및 시민 의견 수렴

시는 지난 7월 설계 공모 공고 이후 9월까지 건축·조경 분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총 12개의 작품 제안을 받았으며,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지난달 12일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인접 주거지역 영향 최소화화를 위한 지하 공간 활용 ▲자연 지형을 활용한 입체적 공간 계획 ▲기후 변화 테마의 독특한 관람 체험 프로그램 구성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시는 설계단계부터 실수요자인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건립될 전시온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선영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여울공원 전시온실은 100만 화성시민이 특례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설계 과정부터 시민들과 협력해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랜드마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선영 공원녹지사업소장을 비롯해 시민계획단 50여 명이 참석했다. 양시현/기자

안양시, 여성단체 활동 공유의 장... '2023 화합 한마당' 열려

안양시 여성단체들이 한 해 동안의 사업과 활동을 공유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날 13시 30분부터 16시까지 안양시청 강당에서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2023년 안양시 여성단체 화합 한마당'이 열렸다. 여성단체 회원 및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안양시립합창단과 기타 공연으로 지역 위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있는 여성단체 현사랑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 활동 보고 및 시상식과 2부 여성단체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1부에서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와 안양여성연대는 여성단체를 대표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다짐하는 '실천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협의회와 안양여성연대가 올해의 활동 사항과 양성평등기금사업성과 등을 타 단체들과 공유하며 한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올해의 여성발전 유공 모범단체로 소비자 보호 활동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에 앞장선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안양시지회가 표창을 받았으며, 안양시여성지도자회 광복순 등 여성단체 회원 11명도 유공 표창을 받았다. 2부에서는 모든 참석자가 '누구나 동등하고 존중받는 안양'을 외치고 손수건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함께 펼치며 안양시 여성단체의 화합과 활동의지를 다졌다. 이승복 협의회장은 대회사에서 "안양시 여성단체들이 지혜를 나누고 직면한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발견

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발전을 이끌어온 안양시 여성단체들이 앞으로도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안양시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협의회 등 활동 보고, 여성발전 유공 표창 등



목포시민아카데미 11월 강좌 개최... 삼프로 TV 김동환 소장 초청

품위있는 자산전략으로 안전한 투자방향 모색



목포시민 아카데미 11월 강좌가 22일 오후 2시 목포역 맞은편 신사옥으로 이전한 목포MBC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강좌는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이자 이브로드캐스팅 이사회 의장이며, 유튜브 '삼프로TV'의 진행자로 활동 중인 김동환 대표가 초빙되어 "품위있는 자산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경희대 정경대학을 졸업하고 리딩투자증권 전무, 하나IB증권 자본시장실 실장이라는 역임하였으며 MBC 주시예능 '개미의 꿈', SBS 신년특집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 카카오투V '개미는 오늘도 똘똘' 등에 출연해 돈이나 경제 관념에 대해 대중적으로

로 친숙하게 다가서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위기와 불안의 시대에 미래투자 전략에 대해 모색해 보고, 재테크를 잘 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돈을 벌기 위한 정직한 방법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강좌는 목포 관광도시의 첫 관문인 목포역 맞은편으로 이전한 MBC 신사옥에서 처음으로 갖게 되는 강좌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 이용도도 높이고 원도심권 활성화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경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전남도,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주민목소리 수렴

12월 집적화단지 신청위한 소통·수용성 확보노력

전라남도가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신안군 지역주민, 어업인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는 14일 신안 도초와 비금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15일에는 지도·임자·중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19일엔 자은·암태·팔금·안좌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 어업피해보상 및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어업피해보상,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다.

전남도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을 지난 3일 일간신문과 전남도·신안군 누리집에 공고하고, 20일까지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12월 초에 예정된 제3차 민관협의회에서 최종 의결 후 12월 중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4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최대 0.1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치를

실시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이에 전남도는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운데 1단계 4.1GW 발전단지를 집적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또한 집적화단지 지정 시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수익금은 계획된 단지가 조성 완료되는 2029년부터 발생해 최대 600억 원 정도로(2023년 기준) 예상된다. 해당 수익금은 발전단지와 연계한 주민소득사업, 공공·복지사업 등 신안군민과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 쓰이는데, 이는 발전사업 추진 시 주민 수용성 확보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신안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지금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집적화단지 지정이 필수"라며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주민수용성 확보이므로,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구례군,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 사업 추진

구례군,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를 배치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각종 행정, 복지서비스 접수 처리 지원



전남 구례군은 11월 14일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 활동가 간담회를 열어 마을활동가 17명을 위촉하고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는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노인 가구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업무 처리에 불편을 겪는 노인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 1기로 위촉된 17명은 마을 단체의 임원 경험이 있어 마을 사정에 밝으며, 컴퓨터 등 전산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이들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어르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활동가는 읍·면사무소와 협의하

여 경로당을 순회하며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의 각종 행정·복지 서비스 신청을 돕는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마을 자원과 연계해 주며, 근로장려금 신청, 고지서 반납 처리 등도 지원한다.

김순호 군수는 "초고령사회 진행에 따른 노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정보가 부족해 온라인 업무처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는 구례군 노인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보성군, '제28회 전남이 하나되는 합창 페스티벌' 개최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18일 오후 2시 전석 무료

보성군은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제28회 전남이 하나되는 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이 하나되는 합창 페스티벌'은 전라남도와 보성군이 주최하고 전남합창연합회가 주관하며 한국합창총연합회가 후원한다.

이번 축제는 합창음악을 통해 하나되는 전남을 목표로 보성군문화예술회관합창단을 비롯해 전남 8개 지자체 16개 합창단이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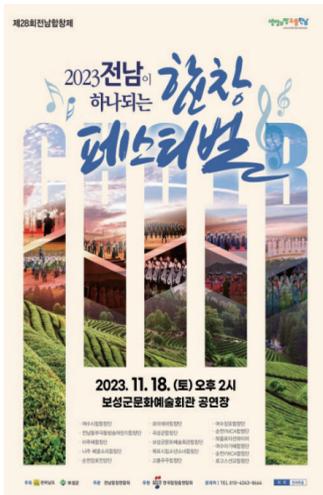
이날 음악회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여수시립합창단의 첫 무대를 시작으로 8개의 합창단과 특별무대인 '소프라노 안혜수'의 무대를 만나 볼 수 있다.

2부에서는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특별 무대 '스톤스 세션' 등 9개 예술단체가 화려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16개의 합창단이 참가하는 만큼 한국 가곡, 외국곡, 동요,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문화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영/기자



지방시대 새로운 돌파구 제시한 순천, 균형발전 우수사례 특별상!

창조·차별 강조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노관규 순천시장 우수사례 강의

순천시가 13일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2023년 균형발전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7개월간 열린 국내 최장기 국제 행사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순천이 지난 생태와 정원이라는 차별화된 성장판을 키우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시대의 새로운 해답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와 관련 기관을 격려하고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노관규 순천시장에 특별상을 전달하면서 "지방시대 가능성을 열어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정원박람회를 들었다"며, "980만 전대미문의



의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순천은 경천동지할 일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순천의 발전도 발전이지만 전국의 226개 지방자

치단체를 구해줬다는 마음으로 이 같은 특별상을 수여했다"며 지방시대, 순천이 보여준 역량에 대해 극찬하는 말을 덧붙였다.

순천시장은 특별상 수상에 이은 우수사례 특별 강의를 통해 정원박람회를 기획하고 추진했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이 바뀌기 위해선 '시장·공무원-시민'이 조화될 삼합(三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순천만, 국가정원 등 우수한 아날로그적 요소에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K-문화콘텐츠 허브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원에 문화의 옷을 입혀 경제의 새로운 판을 완성하게 된다면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축인 남해안벨트 허브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전략도 함께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에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2,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앵커기업 유치 및 문화 콘텐츠 개발 등 '한국판 월트 디즈니' 조성 로드맵을 그려나가고 있다.

이승준/기자

남원 농특산물 베트남과 홍콩 수출시장 공략

포도, 딸기, 쌀, 가공식품 등 베트남과 홍콩에서 농산물 판촉전 실시

남원시는 남원 농특산물인 포도, 쌀, 김부각, 추어탕, 치즈떡, 잡채 등을 베트남에 수출하여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하노이 K-마트에서 남원 농특산물 판촉전을 개최하여 홍보·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또한 홍콩에서도 남원 판촉행사(3회)를 통해 딸기, 복숭아, 포도 등 7억 원을 수출하는 계기가 되어 남원의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베트남과 홍콩 판촉행사는 남원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수출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남원의 우수 농특산물을 베트남 및 홍콩 바이어와 사전에 수출 상담 후 베트남으로 포도, 쌀, 가공식품을 수출하고, 딸기, 복숭아, 포도 등을 홍콩으로 수출하여 베트남 및 홍콩 현지마트에서 판촉전을 실시 전량 마켓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그런 가운데, 특히 올해에는 미국 바이어와 집중 상담을 통해 처음으로 김

부각 및 추어탕, 치즈떡 등을 현지 대형 매장에 납품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남원시는 이번 판촉전을 위해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인 남원농협을 비롯한 5개 농협에서는 공동선별한 출하애인 농산물이 홍콩, 대만, 동남아 등에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2023년에는 포도가 중국 및 캐나다 수출검역단지로 지정되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준비 중에 있다.

특히 남원시는 베트남 및 홍콩 등 동남아 시장은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농산물 수출 주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어, 중국, 싱가포르, 미국, 유럽에도 남원 농특산물을 수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출 촉진 지원되는 만



남원시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유동매장 판촉행사, 바이어 수출상담 등을 통한 수출 활성화에 더 매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남출/기자

전북도,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수험생을 응원합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수능 안전 관리 철저히 이행 주문



김관영 지사가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수송과 방역 등 철저한 안전관리와 방역대책 추진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수능 당일 도내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능 시험 종료 후 예상되는 인파 밀집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북도는 도내 수능시험장 6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 관리 실태 확인을 비롯해 시험장 출입구, 비상구 개방상태 유지 및 소방안전교육을 마쳤다.

또한, 전 시험장에 구급대원 1명을 배치,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16일 시험 당일에는 소방관 서장 중심으로 수험생 수송 지원에 나서고 사이렌 울림을 금지하는 한편, 공무원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등 원활한 수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지사는 14일 개인 SNS를 통해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김 지사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곁을 지켜준 가족과 선생님들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고 격려하고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여러분의 앞날이 가능성과 희망으로 빛나길 바라고 지금껏 잘해 온 만큼 앞으로도 더 잘해 낼 거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진도군, 제10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성료

땅에서 희망을! 농업에서 미래를!



진도군이 제10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한국생활개선 진도군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진도군연합회, 한국4-H진도군연합회 등 4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회원 약 700여 명이 참석해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다.

행사는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4개 단체의 1년간의 성과영상 시청, 유공자 시상, 축사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실천 다짐을 위한 결의문 낭독, 4개 단체 인재육성장학금 200만원 기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농촌지도사업 성과 전시와 단

체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노래자랑, 체육행사도 준비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었다.

“땅에서 희망을! 농업에서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농업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힘든 여건속에서도 삶의 터전인 농촌에서 최선을 다하는 농업인들께 감사하다”며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잘사는 농촌, 활기찬 농업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함평군, 농업정책실 조직개편 후 농업 성과 ‘뚜렷’

30개 사업 보조 246억 포함 365억 6천만원 공모사업 추진 중

전남 함평군이 2022년 말 농업·농촌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산과 농업정책실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후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정책실에서는 올 한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한 결과 30개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246억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사업을 원활히 추진중에 있다.

신설된 먹거리정책팀에서는 농식품부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국비 22억 5천만원을 확보, 총 사업비 45억 5천만원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및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에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계

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와 더불어,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농업로컬푸드 확대 개설 업무 협약 및 bhc그룹과 농산물 전국 유통 협약 등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키워나가고 있다.

친환경농업 분야에서는 함평읍과 신광면에 국도비 11억 포함 20억 사업비로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 시설 구축, 대동면에 친환경 작업장 구축비 15억 등 총 50억 6천만원, 9개 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농업 시설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식량작물 분야는 총 5개사업에서 국·도비 5억6천만원을 확보해 농기계 지원 등 식량작물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농업분야는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등 4개 공모사업이 선정 후 추진중이며 내년에는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지역특화품목 개발에 앞장서며 농업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스마트 농업을 육



성할 방침이다.

이러한 농업정책실의 성과는 지난 10일 전라남도 주관 2023년 농축산식품분야 농정업무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1,500천원의 포상금을 지원받는 등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받았다.

김영진/기자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군의 농업 강화와 발전을 위해 개편한 농업정책실의 성과가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함평의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정책 확대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99% 만족

만족도 조사 결과 “경제적 도움, 건강증진 등 긍정적 효과”



화순군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만족도와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참여자(4,652명)와 수요처(89개소) 서비스대상자(40명)를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을 통해 1:1 설문지를 통한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9%, 수요처의 10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참여 어르신들 대부분이 생활비와 용돈 마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83%)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 참여 후 노후생활의 경제적인 도움(71%)을 받고 정기적인 활동으로 신체적 건강개선(20%) 효과도 좋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9.5%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계속 참여를 희망했다.

또한 수요처의 만족도 조사 결과 기관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70%) 및

지역 사회발전 및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27%)의 응답이 높았다.

보육시설지원 수요처인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노인분들이 중요하고 고마운 분들을 알게 해 주셨고, 노인분들의 능숙한 삶의 지혜를 관찰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사업 참여에 만족을 표했다.

군은 올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만족도 결과를 2024년 노인 일자리 사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다양한 재능을 갖추고 계신 어르신들의 참여와 일터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신규사업 등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경호/기자

나주시, 세지농협멜론공선회·알곡영농조합 ‘대통령 표창’ 영예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서 ‘농업유통’, ‘식량산업발전’ 분야에서 각각 수상

나주시 농업 발전과 대표 농산물 브랜드 육성에 힘써왔던 농업인들의 공로가 대통령 표창이라는 결실로 돌아왔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10일 수원시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세지농협 멜론공선회, 알곡영농조합법인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인의 날은 1996년부터 매년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농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다.

농업유통분야 표창을 수상한 세지농협 멜론공선회는 1996년에 결성돼 현재 70여명의 회원이 소속돼있다.

나주 세지멜론은 전체 재배면적 62ha, 70여농가에서 연평균 약 3200톤이 생산된다. 연평균 기온이 15도(°C)로 적당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멜론 재배에 있어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달콤한 향, 풍부한 과즙에 15브릭스 이상 단맛을 가진 상품만 유통·판매해 고품질 과일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2.5기작으로 재배하는데 특히 겨울 멜론의 경우 전국 생산량 약 80%를 차지한다.

세지멜론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공선 시스템에 있다. 공선회원들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 정산 시스템으로 멜론 품질을 균일화하는데 힘써왔다.

농산물 GAP인증을 비롯한 우수 품종 발굴, 품종 규제를 통해 전국 최고 품질

의 멜론을 유통해오며 지난해 3196톤 규모 멜론을 생산, 매출액 191억원을 달성했다.

2012년 결성된 세지면 소재 알곡영농조합법인은 식량산업발전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80여명의 발농가 회원이 공동경영체 시스템을 도입해 62ha에서 콩, 팥, 유채 등 식량작물 품질 균일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왔으며 논 타작물 재배 확

대를 통한 식량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21년엔 나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Non-GMO(비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채유를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등 건강한 먹거리 산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날 시청사에서 세지농협 이은성 조합장, 김병오 멜론공선회회장, 최정웅 알곡영농조합법인 대표 등과 만나 대통령상 표창을 축하했다.

윤 시장은 “제28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이 분야 최고 상훈을 수상한 세지농협 멜론공선회, 알곡영농조합법인 회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대통령 표창을 통해 나주농업 브랜드의 위상과 자부심, 농업 우수성을 드높여준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주의 기간산업인 농업을 지켜온 농업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살맛나는 농촌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김영안/기자



강진군은 지난 10일, 전라남도가 주최한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수곡 수출 전문 강진 ‘뷰티팜’ 김양석

대표가 원예 특작 분야 농업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들의 헌신과 공

강진군 뷰티팜 김양석 대표, 농업인의 날 '농업인 대상' 수상

수곡 수출 등 공로 인정, 산학관 협력 이상 모델로 호평

헌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특별한 행사로, 김양석 대표는 뷰티팜의 창립자이자 그린화훼영농조합법인 대표로 활동하면서 강진 수곡의 대일본 수출을 견인하고 지역 내 수곡 직거래를 통한 화훼 수급 불안 해결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농경력 15년 차인 김양석 대표는 강진군 칠량면에서 1ha 규모의 농장에서 절화 수곡과 작약을 재배 중으로, 법인 회원들과 함께 일본으로 매년 수곡을 수출하고 있다.

또 농장에서 수시로 ‘팜파티’를 진행해 강진 수곡을 알리는 한편, 코로나로 화훼시장이 어려워지자 강진군과 함께 수

곡 인터넷 판매를 시작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화훼 직판을 이어가고 있다.

뷰티팜은 심사평가단의 현장실사에서 대일본 수출뿐만 아니라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점과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며 6차 산업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산학관 협력 모델의 이상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했다.

김양석 대표는 “수곡을 재배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때마다 강진군과 법인회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왔다”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 준 강진군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 젊은이가 찾아오는 희망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추윤호/기자

경북도, 부품·소재산업 신기술을 한눈에, 2023 국제부품소재산업전 개막

부품 가공기술, 금속·화학·세라믹 등 다양한 소재 분야 제품과 기술 선보여

경북도는 14일부터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시와 공동으로 '2023 국제부품소재 산업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국제부품소재 산업전은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반도체·이차전지, 금속·화학 소재, 전기전자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소재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부품·소재 제품 전시뿐만 아니라 소부장특별관, 항공부품특별관 등에 90개사 155개 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공군군수사의 부품 국산화 설명회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됐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는 국제자동차기기전, 국제로봇산업전과 동시에 진행



행되어 소재·부품·기계·로봇까지의 최신기술과 시장동향을 한눈에 엿볼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기업지원을 위해 반도체·이차전지부품, 미래차부품, 철강소재 고부가, 에어링·경량소재, 탄소복합재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치현 경북도 소재부품산업과장은 "이번 전시회를 지역의 부품소재산업이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산업과의 연계와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북도는 올해 지정된 포항과 구미의 이차전지, 반도체 특화단지과 경주, 안동, 울진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유망기업 유치와 부품·소재산업 발전의 디딤돌을 놓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달성군 옥포파출소 협력단체 청소년선도 합동순찰 펼쳐



옥포파출소와 관내 협력단체는 지난 11월 13일 옥포지구 일대에서 청소년 선도를 위한 합동순찰활동을 펼쳤다. 이날 선도활동은 수능 전후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에 예방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옥포파출소 주관으로 옥포읍자율방범대, 옥포읍 천년나무2단지순찰대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캠페인과 청소년계도, 범죄예방 순찰활동 등을 펼쳤다.

중찬 소장은 "관내 청소년의 비행·탈선 예방을 위해 유해환경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여 더 안전한 옥포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함께한 배경옥 옥포읍장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쳐주신 옥포파출소와 협력단체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활동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활동을 주관한 옥포파출소 금

김동현/기자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남해!' 남해군 노인회관 준공식 개최

장충남 남해군수, "남해군 노인회관은 고령친화도시 군 위상에 걸맞은 공간이 될 것이며 남해군 노인들의 문화·복지·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

남해군은 지난 14일, 장충남 군수, 임태식 군의회의장, 류경완 도의원을 비롯해서)대한노인회 지회위원장, 노인대학장, 경로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군 노인회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남해군 노인회관은 사)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7500만 원(특별교부세 10억,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군비 4억 7500

만원)이 투입됐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2층, 건축면적 396.49㎡ 규모로 건립됐으며, 1층에는 커뮤니티실과 사무실 및 휴게실이, 2층에는 교육실이 자리 잡았다.

특히, 노인복지관에서부터 노인회관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구간을 어르신이 이동하기 편리하게 고령친화적으로 시공한 게 특징이다.

이재신 남해군지회장은 "남해군 노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노인회관 건립이 준공식을 하게 돼, 기쁘고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남해군 노인회관이 남해군 노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축사에서 "사)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는 노인을 대표하는 거점

기관임에도 독립된 시설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1년부터 노인회관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차근차근 준비한 결과가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남해군 노인회관은 고령친화도시 남해군의 위상에 걸맞은 공간이 될 것이며 남해군 노인들의 문화·복지·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영양군, 우리 쌀로 만드는 한식 디저트

영양군우리음식연구회

영양군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회에 걸쳐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실습장에서 영양군우리음식연구회를 대상으로 '우리쌀로 만드는 한식 디저트' 교육을 실시한다.

영양군우리음식연구회는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관내 여성 학습단체로 매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음식 교육을 통해 회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영양의 지역향토 음식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다.

이번 교육은 우리 쌀을 비롯한 여러 농산물을 활용해 찹쌀떡, 개성주약, 건빵오븐강정, 흑임자콩다식, 그레놀라, 순보리빵, 잣쿠키, 생강쿠키, 파인애플과약젤리까지 지역 특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저트를 실습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의 포장까지 배울 계획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레시피는 일반농가나 관내 업체 등에 배포하여 밀가루와 오븐이 없어도 우리 쌀을 비롯한 여러 곡식을 이용해 다



양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상품화 할 수 있는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윤철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을 한해 영양군우리음식연구회는 지역만의 맛을 찾기 위해 치유밥상, 말김치랑삼 등의 다양한 한식차림 교육을 진행하고 연구·개발했는데 상차림의 마지막인 디저트 교육까지 모든 과정이 영양군의 건강한 농산물 홍보가 되고 오롯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연계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등곳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청송군은 지난 14일, 청송초등학교 후문에서 청송군녹색어머니연합회 주관으로 운전자 교통 법규 의식제고/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등곳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등곳길 교통안전 캠페인'은 ▲ 등곳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보행 3원칙, 서다-보다-걷다) 및 교통안전 지도 ▲사람 중심 교통문

화 캠페인(차보다 사람이 먼저!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 대상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청송군 녹색어머니연합회를 비롯하여 청송군청, 청송경찰서, 청송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어머니교통봉사대 등 50여명은 등고

청송군, 안전한 등곳길을 만들자!

시간에 맞추어 현수막, 피켓, 어깨띠 등을 이용하여 교통안전캠페인을 펼쳤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교통안전캠페인,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교통안전캠페인을 진행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박현국 봉화군수, 산자부 방문해 양수발전소 유치 건의

박현국 군수,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게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동반하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군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방문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만나 양수발전소 유치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봉화군은 2035년 준공 목표로

1.75GW 규모 양수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소천면 남회룡리와 두음리를 사업대상지로 500MW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포항시, 배터리 기술 초격차 선도도시 '포항'에서 국제컨퍼런스 열렸다!

이 시장, "네트워크가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퍼런스 내실 기하겠다"

포항시가 글로벌 배터리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기술 교류를 통한 배터리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항시는 14일 포스코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배터리 기술 초격차 선도도시 포항을 주제로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컨퍼런스 2023(POBATT 2023)'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병훈 예코프로 머티리얼스 대표, 정영모 LG 에너지솔루션 상무, 박주영 IMERYS 대표,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 등 국내외 기업인과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컨퍼런스 시작에 앞서 7월 지정된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후속 사업 발굴과 산학연 협력을 위한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 기관단체 20여 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 세레모니를 진행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기조 강연에 나선 정영모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LG에너지솔루션의 소재 및 배터리 기술'이란 주제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전략과 기술을 발표했다.

이어 팰 룬데(Pål Runde) 노르웨이 배터리협회장, 안드레아스 마이어(Andreas Maier) 모로우(Morrow)배터리 부사장은 노르웨이 배터리산업을 소개하고 유럽 시장을 통해 본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비전과 전망을 발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로저 마틴센 상무참사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부에서는 최원창 건국대 교수가 '차세대 소용돌이온전지 양극 및 음극소재 기술'을, 정훈기 KIST 박사가 '차세대 음극재 기술 개발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현황과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3부에서는 박주영 IMERYS 대표가 '리튬이온배터리의 제품 개발과 소재 혁신'을, 홍정진 포스코퓨처엠 상무는 '포스코퓨처엠의 이차전지 소재사업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정호일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이 '전기차 대중화 시대와 배터리 업계 이슈',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및 기술 변화'에 대해 발표하면서 차세대 양극재 기술과 리사이클링 시장 전망을 분석했다.

마지막 4부 패널토론에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개요와 육성방안'에 대해 정

명숙 포항시 배터리첨단전략산업과장이 발표했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 이상민 포스텍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린 토론을 이어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020년부터 수도권에 아닌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왔다"며 "컨퍼런스를 통해 구축한 탄탄한 네트워크가 비즈니스로 이어지도록 전시와 토론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컨퍼런스 규모와 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종합관 리센터 준공 및 운영, 사용자 배터리 자원 순환 클러스터 등 많은 국책사업을 유치해 왔으며, 지난 7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전무후무한 4년 연속 우수특구로 선정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에 이어 국내 최초로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가 적용되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에도 도전하며 배터리 허브도시로의 위상을 다져갈 계획이다.

윤태용/기자

‘선두구동 항공 중화요리,’ 금정구 어르신 대상 ‘사랑의 짜장 나눔’ 봉사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은 관내 항공 중화요리(대표 이정화)에서 관내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성껏 만든 짜장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항공 중화요리의 재능 기부로 직접 만든 짜장면과 떡, 음료 등을 대접하며 온정을 나누었으며, 선두구동 발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적

십자 봉사회 회원들도 함께하여 나눔의 자리를 빛냈다.

이정화 대표는 “어르신들께 음식을 대접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희태/기자

영주시 체류형 관광의 새로운 시작 ‘장수발효 체험마을’ 개장

발효음식에 대한 교육, 체험, 숙박 모두 한 곳에서 남북부 관광벨트 연계하는 거점시설 탄생

박남서 영주시장, “장수발효 체험마을 개장 계기로 영주의 우수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돼 ‘신명나는 관광도시, 영주시’가 되길 기대해”



영주시는 지난 15, 일 체류형 관광사업의 거점시설로 활용될 장수발효 체험마을(부석면 임곡리 222)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최된 개장식에는 박남서 영주시장,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 지역주민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77억 원(국비 31, 도비 5, 시비 41)을 투입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효문화의 복원과 발전을 테마로 장

수발효 체험마을을 조성했다.

체험마을은 숙박동 및 사무실(665㎡), 체험동(385㎡), 교육동(529㎡), 주차장(70면)으로 구성돼 있다.

영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화방사는 지난 7월 장수발효 체험마을을 관리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 지역주민을 비롯해 향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단.

인근지역 기업체·타지역 주민 등 53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장수발효 체험마을은 발효음식에 대한 교육과 체험, 숙박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복합 관광시설이다. 시는 향후 장수발효 체험마을을 영주시 북부에 위치한 부석사·소수서원, 남부에 조성될 수변 레저관광 벨트를 연계한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장수발효 체험마을 개장을 계기로 영주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돼 ‘신명나는 관광도시, 영주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의성 공항신도시, 전국 최초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쾌거

경북도, 국토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미래모빌리티도시형 공모 선정

경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UAM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구현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관한 「'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에서 의성 공항신도시가 전국 최초 미래모빌리티도시형 특화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공모사업은 6월 12일부터 10월 6일까지 17주간 공모를 통해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 이후 13일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이에 경북도는 경북도의회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연구회와 함께 의성 공항신도시를 도시계획 시점부터 첨단모빌리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미래모빌리티도시형’으로 지원하여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선정으로 전국 최초의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지정된 의성 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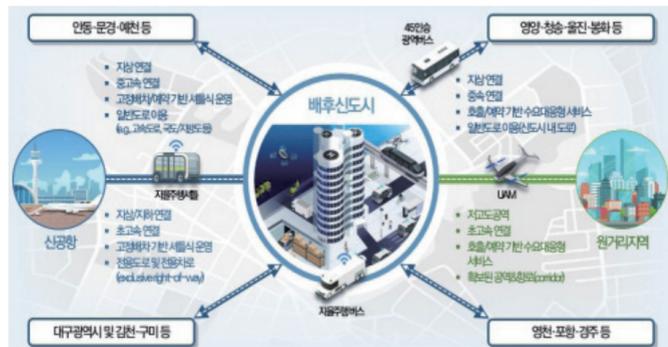
신도시에는 국비 3.5억 원을 지원받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향후 본사업 추진 시 모빌리티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또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상용화 이전 단계의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실증하고 연구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도 지원받는다.

경상북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의성군 일대 신공항 배후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기반 신도시의 자족과 공항과의 여객/물류 연결 기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대구경북의 新 역원(驛院), 공항일체형 모빌리티 허브 도시’로 비전을 설정했다.

모빌리티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신도시를 공항의 출입구/터미널/라운지로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이용한 고속 전용 모빌리티, 고속도로IC 연계 모빌리티 허브 등의 서비스를 제안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하이브리드(고



정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의 자족성 및 경쟁력 강화 ▲신공항-신도시간 자율주행 전용차로 기반 여객/물류 셔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공항과의 연계성 강화로 도시경계기능 활성화 ▲모빌리티허브 및 대구경북 MaaS 구축을 통한 공간적 차원 축소로 도심 내 공항과 같은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의성군, 경북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운대학교 등 6개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전략 회의를 거쳐 구상안을 도출하고, 지난 10월 4일에는 6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공항 배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동 추진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태림 경북도의회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연구회장은 “대구경북공항 및 공항 배후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의성이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익 상북도 대구경북공항본부장은 “이번 모빌리티 특화도시 선정은 지난 10월에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지방주도 시대에 공항신도시 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혁신을 담아 대구경북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공항경제권의 핵심 거점도시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시민 참여와 민-관 협업의 중요성 등 강조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은 11월 14일 오후 1시 30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의 초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에서 ‘공공기관과 자치경찰’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재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박동균 사무국장은 2021년 7월 시행된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특징, 대구자치경찰의 그간 성과와 과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강은 궁극적인 점에 대해 수시로 질의 응답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고 유연한 ‘소통·공감’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서, 박동균 사무국장은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대구도시개발공사,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한국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미래의 공직자’ 꿈꾸는 대학생들과 ‘자치경찰 소통·공감’

동산원, TBN 한국교통방송 등과 협연해 보이스피싱·부동산 전세 사기 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했고, 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다문화센터 등을 방문해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며, “자치경찰제는 경찰 행정과 주민자치행정을 잘 결합시킨 제도다.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민-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과 현장 경찰관들이 협력해 지역 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찾아내고, 그에 걸맞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필수적이다. 이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튼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동균 사무국장은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한국경찰연구회회장 등을 역임한 명실공히 ‘자치경찰 전문가’다. 2021년 5월,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3년간 휴직하고 대구광



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사무국장으로서 임명됐으며, 76년 만에 최초로 실시되는 ‘한국형 자치경찰제’를 뿌리내리기 위해 전전후로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특강이 실시된 경북대학교 행정학부는 1971년 설립된 지역 대표 공공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법학 및 Pre-Law, 실무형 관리·분석 기법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국가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우수한 공직자를 다수 배출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위대한 시민과 손잡고 새로운 안동 열다’ 「2024년도 안동시정 설명회」 개최

민선 8기 시정운영 방향과 비전 공유, 이해와 공감 속 시정동력 확보

- 권기창 안동시장, “새로운 안동을 염원하는 위대한 시민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도전과 혁신의 발걸음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다”고 밝혀



안동시가 내년도 자체 업무보고를 마무

리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에 나서고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동관 낙동홀에서 「2024년도 안동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비전을 공유해 이해와 공감을 얻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안동을 열어나간다는 계획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특히, 지방에 중심을 둔 국정 방향에 발맞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선결과제로서 소통을 통해 역점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관광문화·경제행정·복지환경·도시건설·보건·농업·평생학습·재정운영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 분야 걸쳐 진행됐다. 담당업무 국·소장이 직접 나서서 소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기획예산실장이 안동시 살림살이 규모와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먼저,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관광자원·전통문화·스포츠를 연계한 1천만 관광객 시

대 달성을 위한 ▲사계절축제 ▲야간관광 콘텐츠 ▲국립민속박물관 유치 ▲스카이라인(패러 글라이딩-MTB) ▲걷기 좋은길‘맨발로’ 등의 사업을 소개했으며, 경제행정분야는 일자리-상권-신성장산업의 활력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기업유치 ▲청년 일자리 조성 등에 대해 발표했고, 복지환경분야는 ▲사회안전망과 보육 인프라 조성 ▲안기복개천 복원사업 ▲클린시티 조성 등, 도시건설 분야는 ▲구 역사부지 활용과 ▲중앙 선 페선부지 활용계획 ▲사동팔달 교통망 구축 ▲수자원 활용 물산업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보건분야에선 각종 ▲무료 예방접종 사업과 ▲치매 통합관리사업이 소개됐고, 농업분야는 전문화·규모화·첨단화를 위한 ▲계절근로자 운영 ▲농기계 임대

배달 사업 ▲농축산물 웹프산업 클러스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귀농귀촌 사업을 교육분야는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교육발전특구 지정 도전 등이 집중 부각됐다.

이번 설명회는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시정 전 분야의 역점사업을 시민에게 설명하는 공론화의 장을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인구소멸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바꿀 민선 8기 안동시의 비전과 전략에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당부드린다”라며 “새로운 안동을 염원하는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도전과 혁신의 발걸음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명성약국, 영양군립요양원에 1,500만원 상당 후원금 및 물품 기부

영양 명성약국은 영양군립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을 위해 3년 전부터 현재까지 매월 후원금 및 물품(1,500만원 상당)을 기부해 오고 있다.

명성약국은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역할 뿐 아니라 영양군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자영 대표는 “지역사회 발전과 취약계층 노인의 공동 상생을 목표로 작은 정성이나마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어려운 가정에 따뜻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재진 원장은 “명성약국의 나눔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많은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돼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후원금 및 물품은 전액 어르신들을 위하여 사용하며,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행복한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양군립요양원은 영양군 직영시설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양질의 노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며, 입소 어르신들과의 상호 존중과 협력, 지역사회교류를 통해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근수/기자

이차전지 신속 추진단 출범! 경북도 글로벌 특화단지 조성 박차

경북 포항 2030 글로벌 최대 이차전지 원료·소재 생산기지로 비상 목표

경상북도는 11월 14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경북도, 포항시, 경북 소재 산·학·연 기관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기술 초격차 선도도시 포항 POBATT 2023'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사전 행사로 경상북도-포항시-이차전지 선도 기업-연구기관 간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이 진행됐다.

경북도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포항-이차전지가 선정된 후 전력·용수·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회 건의, 이차전지 국제포럼, KDB산업은행과의 금융지원 업무협약 등을 연이어 추진하며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은 경북도가 가진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투자기업의 초기 착공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차세대 R&D 기획, 테스트베드 구축 등 특화단지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2030 양극재 생산 100만t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이차전지 원료·소재 대량생산기지 구축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도는 글로벌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시작으로 각종 정책사업과 '27년까지 약 14조원이라는 유례



없는 이차전지 기업 투자를 유치하며 특화단지 지정까지 쉼 없이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

특히 지난 11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 이차전지 투자기업의 공장 초기 착공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분계획의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이 결정되면서 투자기업이 공장을 초기 착공할 수 있게 됐다.

그 배경에는 이달회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국가산단 입주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더불어 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대통령 건의가 있었다.

경북도는 특화단지 신속 추진단에 행정·정책 역량을 집중해 특화단지의 건설한 조성으로 이차전지 글로벌 초격차 기술"이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1부) '유럽시장을 통해 본 글로벌 배터리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 Norway 배터리협회 대표 팰 룬데(Pål Runde),

이달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한 중국의 수출규제를 보듯 이차전지는 경제 산업적 측면의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전략적 자산이다"라며,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정양모 상무의 "LG에너지솔루션의 소재 및 배터리"를 주제로 한 연설이 이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의 소재 및 배터리

모로우 배터리 부사장 안드레아스 마이어(Morrow Andreas Maie)의 발표가 이어졌다.

제2부에서는 '한국의 배터리 업계 현황 및 미래'라는 주제로 건국대 최원창 교수, KAIST 정훈기 박사가 이차전지 산업 전망을 설명했다.

이어진 제3부에서는 MERYS 박주영 대표, 포스코퓨처엠 홍정진 실장, 포스코경영연구원 정호일, 성일하이텍 이진욱 전무가 '차세대 양극재 기술과 리사이클링 시장전망'에서 차세대 이차전지 R&D 방향과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 이후 경북 포항이 강점을 가진 리사이클링 분야 고도화에 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나아갈 방향'패널토론을 끝으로 경북의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한 중국의 수출규제를 보듯 이차전지는 경제 산업적 측면의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전략적 자산이다"라며,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달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한 중국의 수출규제를 보듯 이차전지는 경제 산업적 측면의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전략적 자산이다"라며,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금융·법률 서비스 연계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 강화

부산시는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금융·법률 상담을 확대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보증금 대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kb국민은행 시청점과의 협력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법률·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금 대출 지원사업의 경우 시중 5개 은행(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피해 임차인 개개인의 신용 및 대출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상담 및 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에 대한 상담 지원이 가능해 피해 임차인들은 금융상담을 받는 데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시청 3층에 위치한 kb국민은행(시청점)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를 마련해 지원한다. 이로써,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피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및 디딤돌 대출 상담까지 시청 내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 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 상담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약을 통한 법률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약 시스템이 구축되면 피해센터 내방객 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법률(변호사, 법무사 2명 등)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피해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센터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사전 예약을 통한 전화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산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자 법률상담을 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내년 1월 중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3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는 부산시청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전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접수·조사' 기능과 법률·심리 상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시는 홀닥터(법무부) 변호사를 통해 주 3회 운영해 오던 법률상담을 10월부터 부산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 5회로 확대하는 등 법률소송 상담을 매일(월~금) 운영하고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해 전월세 계약 코칭서비스를 주 2회(화, 목)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심리상담사 유선 상담을 지원하고 전문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부산시는 전국 유일 이주와 주거지원을 결합한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지난 9월 12일부터 시행해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임차인에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2.1% 한도, 2년)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40만 원 한도, 2년) ▲이주비 지원(1회 150만 원)을 한다. 피해자 등은 '이주비+월세' 또는 '이주비+전세대출이자'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예비비 16.6억 원을 편성해 9~10월 신청 접수를 거쳐 총 36건(이주비 19건, 월세 14건, 대출 이자 3건)을 지원했다. 지원이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예산 확보에도 총

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매 등으로 긴급 거처가 필요한 피해 임차인을 위해 163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제공하는 한편, 피해 임대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단전·단수 유예, 승강기 등 소방안전 점검 등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 제작을 통해 언론 및 고등·대학교 대상으로 홍보하고, 청년 대상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 교육 등을 추진해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3.6.1. 시행)에 따른 부산지역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1,009건, 인정률은 90%로 전국 인정률 83.4%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시가 피해자 인정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와 상담을 통해 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 대한 수사 등 철저한 사실조사,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대응한 결과다.

부산시는 피해자결정신청 시 접수된 진술 의견, 다수 피해임차인 등에 대한 피해 확보, 수사 여부 등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무자본캠프가, 무권계약(신탁사기 등), 허위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주요 피해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월말까지 부산시로 접수된 피해 접수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 중 20~30대가 전체 84%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부산진구(443건)의 피해가 가장 크며, 피해 규모는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는 전체 52%를 차지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49%), 다세대(35%) 순으로 피해건수로 확인됐다. 월별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추이는 6월(499건), 7월(251건), 8월(213건), 9월(179건), 10월(111건)이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피해 임차인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과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부산시, kb국민은행 시청점과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자 자금 대출 원스톱 상담 지원

부산시 시청 3층에 위치한 kb국민은행(시청점)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를 마련해 지원한다. 이로써,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피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및 디딤돌 대출 상담까지 시청 내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 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 상담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약을 통한 법률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약 시스템이 구축되면 피해센터 내방객 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법률(변호사, 법무사 2명 등)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피해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센터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사전 예약을 통한 전화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산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자 법률상담을 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내년 1월 중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3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는 부산시청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전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접수·조사' 기능과 법률·심리 상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시는 홀닥터(법무부) 변호사를 통해 주 3회 운영해 오던 법률상담을 10월부터 부산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 5회로 확대하는 등 법률소송 상담을 매일(월~금) 운영하고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해 전월세 계약 코칭서비스를 주 2회(화, 목)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심리상담사 유선 상담을 지원하고 전문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경북도민행복대학 예천캠퍼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자선바자회’ 열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경북도립대학교 청남교육관에서 물품 판매 김학동 예천군수, “평생학습으로 군민들의 생활이 더욱 풍요롭고 따뜻한 예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예천군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경북도립대학교 청남교육관에서 '제3회 나눔 자선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바자회는 제3기 경북도민대학 학생자치회(회장 손병기)가 주관해 학생들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하며 지역주민들과 화합을 이끌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바자회는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의류, 장난감,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한다. 수익금은 연말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

을 위한 성금 등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제3기 경북도민대학 학생자치회는 자신 바자회뿐 아니라 환경정화활동(플로깅), 수해 현장 봉사활동, 예천바로 알기-예천 8경 관람 및 정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학생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열정적으로 배우고 봉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경

북도민행복대학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평생학습으로 군민들의 생활이 더욱 풍요롭고 따뜻한 예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민행복대학은 체계적인 양질의 교육과 학생자치활동, 캠퍼스별 특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예천군, 경북도립대학교가 추진하는 평생학습 사업이다.

정금자/기자

제11회 청송사과배 전국테니스(비랭킹) 대회 개최

윤경희 청송군수, “제11회 청송사과배 전국테니스 대회가 개최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테니스 동호인들이 좋은 성적과 청송에서의 추억을 가득 가지고 돌아가길”



청송군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청송군민운동장 테니스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전국 및 지역 신인부 제11회 청송사과배 전국테니스(비랭킹) 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송군테니스협회가 주최·주관하며 청송군, 청송군의회, 청송군체육회가 후원하는 대회로, 전국 및 지역 신인부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되며 약4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청송군은 이번 테니스대회를 통해 테니

스의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아울러 청송군을 찾아주는 선수 및 관람객들을 통해 자연이 만든 명품 청송사과를 홍보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기대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제11회 청송사과배 전국테니스(비랭킹) 대회가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개최됨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국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좋은 성적과 함께 청송에서의 추억을 가득 가지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문경시 문경읍 주민제작영화 시사회 성황리에 개최

주민 참여로 탄생한 특별한 이야기

문경시 도시재생과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10일 문경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신한국 문경시청, 황재용 시의회 의장, 영화 관계자 및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경을 주민제작영화 시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주민들이 직접 대본을 작성하고 연출과 편집을 거쳐 영화를 제작하는 주민영화사업은 22년 문경읍이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주를문화센터 내 마을영화관을 준공하고 마을활동가들이 주 3회 영화를 상영하는 등 주민 역량강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2번째 해를 맞이했다. 제작된 영화는 전국 시나리오 공모전에



서 선정된 각본으로 문경의 자연과 젊은이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오미자, 날다'와 문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70대 여인의 홀로서기 '남편에게 쓰는 편지', 한 중학생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할머니의 사진첩'으로 총 3편의 단편 및 독립 영화가 상영됐다.

영화 제작에 참여한 박정희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주신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시사회에 참석한 신한국 문경시장은 “우리 지역의 익숙한 공간과 장소들을 아름답게 담은 영화가 주민들의 주도하에 탄생함에 감탄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더 좋은 결과물을 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독일에서 강원 '바이오·헬스' 도약의 날개 단다.

강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총력

도내 의료기기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독일국제의료기기전시회(MEDICA)('23. 11. 9. ~ 12.)를 방문 중인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캐나다 알버타주 캘거리경제개발청 및 독일 티뷰브이 라인란드(TÜV Rheinland)와의 잇따른 만남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협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먼저 11월 13일에는 캐나다 알버타주 캘거리경제개발청*과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4년은 알버타주와 자매결연 50주년이 되는 해로,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서의 교류 관계를 재정립하고, 특히 양국의 바이오헬스 산업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양국의 투자유치 협력을 통해 '강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캐나다의 기업 및 연구소 유치와, 바이오헬스 공동연구 협력을 통한 산업기반 강화 등 양 지자체의 동반성장과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14일에는 글로벌 인증기관 독일의 티뷰브이 라인란드(TÜV Rheinland)와 '규제과학클러스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강제되고 있는 유럽 인증 규제에 대한 정보 공유, 교육 협력과 공동 연구개발 등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규제에 대응하여 기업들의 체계적 인증지원을 공동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협력체계 구축은 현재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방문 및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 개최를 통해 양국의 바이오헬스 협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친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한-독 네트워크 활성화 논의, 국제 연구개발(R&D) 사업 협업 제안, 의료기기 창업 벤치마킹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금번 이뤄지는 만남이 강원자치도 바이오헬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이러한 협력체계는 강원자치도가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및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충북도 '지역상생형 RE100 산업단지 표준모델 실증사업' 공모사업 선정



산업부 주관 RE100 산업단지 표준모델 실증 추진

충청북도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충주산업단지 RE100 표준모델 실증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는 7억원 중 국비 3.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도 RE100 이행 압박이 증가하고, 국내 및 해외 RE100 가입 기업에 납품업체 또한 필수로 RE100을 이행 해야함에 따라 도

내 수출기업들이 점점 무역장벽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는 수출기업들의 어려움 타개를 위해 'RE100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충주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행 수단을 지원하며, 충주산업단지의 특성상 주력업종, 기업환경, 에너지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하여 향후 도내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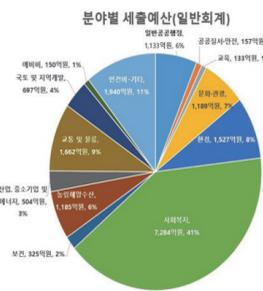
단지와 기업 RE100 이행계획 수립 및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충북도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충주산업단지 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최적화 공급 등 RE100 산업단지 표준모델 개발과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향후 충북형 산업 RE100 확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김해시 2024년 예산안 2조 1,273억원 편성

제2회 추경예산 252억원 증액안 포함 시의회 제출



시아 문화도시 등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내년도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7,284억원(41%) ▲교통 및 물류 1,662억원(9%) ▲환경 1,527억원(9%) ▲문화 및 관광 1,188억원(7%) ▲농림해양수산 1,185억원(7%) ▲일반공공행정 1,133억원(6%) ▲국토 및 지역개발 697억원(4%) ▲산업 및 중소기업 504억원(3%) ▲보건 325억원(2%) ▲공공질서 및 안전 157억원(1%) ▲교육 133억원(1%) 순이다.

아울러 김해시는 252억원이 증액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최종 2조4,445억원 : 일반회계 2조 173억원, 특별회계 4,272억원)도 편성해 시의회에 함께 제출했다.

홍태용 시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의존재원과 지방세 감소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 재정 여건이 힘든 상황이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주요 현안사업은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사회적약자 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은 우리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 전국체전과 김해방문의해 등 대형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가 김해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250회 제2차 김해시의회 정례회(11.21~12.21)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은 12월 4일, 2024년 예산은 12월 21일 최종 확정된다.

최광용/기자

산청군,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추진

내수 활성화로 시장 활력 제고

산청군은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전통시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날 덕산시장을 시작으로 16일 산청시장, 20일 단성시장에서 진행된다.

라이브커머스는 플랫폼 '그립(Grip)'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전국 소비자와 소통하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한다.

특히 각 전통시장 장날(오일장)에 맞춰 봄나물, 과일, 채소, 건어물 등 산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소개·판매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에 '그립' 앱을 설치 후 시청(참가)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라이브커머스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산청의 싱싱한 농특산물을 많이 구매하고 전통시장의 따뜻한 정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박진 외교부장관, 과학기술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외교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과학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 심화 속에서 과학기술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과학기술외교아카데미(MOFA-STAR)' 1기 수료식을 11월 13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했다.

동 아카데미는 신설청 외교부 과기협력대사가 진행했으며, 양자과학기술, 우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사이버보안, 첨단로봇, 차세대 통신 등 분야 국내 최고 과학기술전문가를 초청해 격주 총 10회 강의로 실시했으며, 외교부 25개 실국 등에서 총 180여 명이 수강했다.

박 장관은 '과학기술외교아카데미'에서 다루어진 양자기술개발, 우주외교, 6G,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 등 청정에너지 협력, 첨단산업의 근간인 반도체·핵심광물 안보전략, 바이오·로봇·인공지능 등 신기술 등은 모두 미래 산업·안보의 게임체인저가 될 분야라고 하고, 향후 과기외교 전략 추진에 있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해나



가면서 외교부가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과학기술외교아카데미가 최고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신설청 과기협력대사와 외교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향후 과기외교전략을 고민해볼 수 있도록 강연해준 각 강연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신성철 과기협력대사는 기술패권시

대 국가미래전략 구상과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에도 과학기술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아카데미 수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도화 되는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역량을 다각도로 지속 강화해나감으로써 과학기술외교를 본격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가장 한국적인 곳 경북

신비로운 철의 왕국 대가야

신라 천년의 수도

신라 천년의 수도

불교 건축의 정수

경주 석굴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역사와 문화의 고장 김천

문경 새재

노블레스 오블리주

안동 임청각

경북에 이런 유서 깊은 명소가!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사진 출처: 문화재청

강원디자인진흥원, 2023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국제 디자인 어워드 연속 수상과 세계 100대 디자인 선정으로 강원 디자인 국제무대 입증



강원디자인진흥원은 '2023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 강원디자인페스타 EI(Event Identity)인 Gdf(Gangwon design festa)를 출품하여 본상(Winner)을 수상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iF 디자인 어워드,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평가받는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어워드이다.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등 3개 부문으로 시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원디자인페스타(Gdf)의 티는 '뉴욕 그래픽스 어워드'에서도 디자인 어워드 '금상'과 포스터 어워드 '은상' 3개를 동시 수상하고, 미국 시카고 'STA(Society of Typographic Arts)' https://www.instagram.com/typographic_arts/ 100'에도 선정되어 진흥원의 기획과 브랜딩 능력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수상작은 '강원디자인페스타(Gangwon Design Festa)'의 티로 지난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하여 디자인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복합 테마 전시의 브랜딩 결과물이다. '성장'과 '도약'이라는 콘셉트로 진흥원이 지난 2020년 10월 개원을 시작으로 그동안 쌓은 진흥원의 의미미한 성장과 강원 디자인산업 발전의 의지를 'Gdf'타이포그래피로 표현했다. 올해 '강원디자인페스타(Gdf) 2023'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맞이하여 '새로운 강원 디자인 시대'라는 주제로 11월 29일 진흥원 전시장에서 개최하

며, 국제 디자인 어워드 수상 기념으로 어워드 수상관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인숙 원장은 "강원디자인진흥원의 페스타는 단순한 지원사업 성과전시를 넘어 지·민·관·학·과 함께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국제 어워드 수상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디자인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와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5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경영부문에서 지역 디자인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등원/기자

충남도 "도정과 도민 연결하는 케이블3사 역할 중요"

도, CMB·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업무협약... 도정홍보 강화



충남도와 지역 케이블방송 3사가 민선8기 힘센충남의 주요정책 및 우수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태홍 지사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영진 CMB 대전세종충청사업본부장, 김홍익 LG헬로비전 커뮤니티그룹장, 송재혁 SK브로드밴드 보도본부장과 '충남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케이블방송3사는 △지역정책 및 주요행사의 홍보지원 △우수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협력사업 △홍보정보의 교류 △도 및 케이블 3사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케이블방송 3사는 도정과 도민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 긴밀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케이블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케이블방송3사에서도 지역밀착형 방송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CMB방송은 공주·보령·부여·서천·금산·계룡·논산, LG헬로비전은 서산·당진·예산·청양·태안·홍성, SK브로드밴드는 천안·아산 지역에서 시청할 수 있다.

최정근/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2023년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아산 송악마을공간 해유, 균형발전 성공 노하우 전국에 확산

아산시가 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2023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14일 아산 모나밸리 아레나홀에서 열린 '2023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롯해 김태홍 충남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관계 공무원 및 기관·단체장,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아산시는 지난 8월 우수등급을 받은 지방정부 중 최고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지난 8월 아산시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받은 포괄보조사업(359개 사업, 2.1조 원)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우수·보통·미흡순)을 받은 바 있다. 아산시에 '대통령상'의 영광을 안겨 준 우수사례는 '사랑해유 함께해유 송악마을공간 해유'다. 아산시 송악면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던 여러 농촌 지역 중 하나였다. 하지만 2016년 주민 주도로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이 창립되면서 '교육 특화 마을'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주민 스스로 교육 사업을 발굴하고, 문화 행사를 기획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민들은 '송악마을공간 해유'에서 남녀노소 참여할 수 있는 인문·예술·문화 강좌를 기획하고, 이웃 독거노인과 결손 가정 아이를 돌보는 돌봄 사업을 진행하는 등 마을 공동체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2023년 기준 송악면 인구는 4189명. 13년 전보다 34% 늘어난 숫자다.



주인 평균 연령 역시 43세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타 농촌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해유'를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 강화와 풀뿌리 주민참여 교육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라는 입소문이 난 덕분이다. 시상식에 참여한 박경귀 시장은 "송악마을공간 '해유'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역량 강화, 헌신적인 봉사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내 지역에 대한 애

정에서 출발해 지역소멸 위기를 타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닦아주시는 송악면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박 시장은 이어 "오늘 시상식을 통해 공유된 각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에는 각 지역의 제도와 인력, 환경 등 특장점이 반영되어 있다"면서 "오늘 공유된 우수사례만 보아도 주민참여와 자치로 성과를 꽃피우는 지방정부의 역량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을 믿고 국가 균형발전의 주도권(initiative)을 지방정부에 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아산시 송악면의 사례가 아산 발전을 넘어 전국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우수 사례로 공유되길 기대하며, 오늘 아산의 성과가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소중한 반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했으며, 32개 기관 및 63명이 표창을 받았다.

김원호/기자

태백문화예술회관 11월 기획공연 어린이 안전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태백문화예술회관 11월 기획공연
2015 국민안전처 안전문화장려사업 우수상 / 2017, 2020, 2023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문화공간 우수공연프로그램 선정

어린이안전체험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2023. 11. 29.(수) 10:30 (50분)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 전석 무료 / 관람대상 | 전체관람가
티켓오픈 | 2023. 11. 20.(월) 10:00 ~ 일반오픈
예매처 | Interpark 티켓 / 태백문화예술회관 033-550-2781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주관 태백시 (주)조은아트플러스

원주시 '2023년 치악산 황장목 숲길 걷기 축제' 개최

트레킹·문화체험·테마존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제공

'2023년 치악산 황장목 숲길 걷기 축제'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치악산 국립공원 내 구룡사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한울카페에서 출발하여 황장목 숲길을 따라 세렷폭포까지 약 6.5km의 코스의 트레킹으로 진행된다. 이날 구룡사 한울카페 광장에서는 개회식, 축하공연과 원주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옷·한지 공예 체험장과 원주시 관광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테마존을 운영한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에서는 사전 신청을 통해 폐낙엽 원예와 한지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관람객은 인스타그램 '플라워워크'를 팔로우한 후 DM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치악산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귀하게 쓰이던 황장목의 군락지 중 하나다."라며, "황장목 숲길에서 상쾌한 공기와 함께 자연 풍경을 감상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2023 황장목 숲길 걷기 축제
23.11.18 오전 10시
구룡사 한울카페 앞 무대광장

행사 정보	트레킹
일시 : 23.11.18 (토) 10:00 장소 : 한울카페(치악산 구룡사 광장)	코스 : 한울카페(치악산 구룡사 광장) 1차 : 10시 50분 2차 : 13시 00분
프로그램	무료 체험 신청
무대 공연 프로그램 (10:00 ~ 12:00) 프리마켓 (12:00 ~ 14:00) 원주 테마존 전시	폐낙엽 원예 (10:00 ~ 13:00) 한지공예 (13:00 ~ 15:00) 원주 문화체험 (10:00 ~ 13:00) 한지공예 (13:00 ~ 15:00) 장소 : 강원도 자연학습원

천안시, 새내기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공유

열정나래 미래비전단,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개최



천안시는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정나래 미래비전단'이 1년간 준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정책연구과제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열정나래 미래비전단은 천안시 소속 엠제트(MZ)세대 공무원 25명이 모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정책을 만들고자 활동하는 연구모임이다. 지난 3월 출범한 이후 공동연수, 정책

토론회, 벤치마킹, 상담 등을 통해 다방면의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고 시정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설계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날 미래비전단은 1년 동안 연구해온 결과물로 ▲천안형 매장 정보 표시 큐알(QR)코드 ▲성성호수공원 활용 야외독서 프로그램 ▲천안시 맞춤형 신규 공무원 길라잡이 ▲더 깨끗한 천안형 쓰레기 배출지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PM)

도시 천안 등 총 5건을 제시했다. 시는 심사를 통해 최우수 및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의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책개발이라는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는 과정을 겪으며 시정에 대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됐길 바란다"며 "항상 배우려는 태도를 잃지 않고 여러분의 능력을 성장시킨다면 앞으로 시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문화예술회관 11월 기획공연으로 어린이 안전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이 오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도와줘요 안전맨』은 '2023년 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일환으로 재난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친구들을 도우려고 하는 안전맨의 이야기를 다룬 공연이다. 이번 어린이 안전 체험 뮤지컬을 통해 비상시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등 각종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연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1~2학년)들이 단체관람 예정이며, 11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일반을 대상으로 인터파크와 현장 예매가 가능하며, 태백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태백문화예술회관은 수준 높은 공연과 문화예술 나눔으로 시민 개개인의 문화 수준 향상과 격차를 해소하고자 뮤지컬, 연극, 무용, 클래식 등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상근/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 10년 만에 한자리... 첫 우수 성과보고회 가져

우리 동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서울시 자율방재단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우수 활동 성과를 공유한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자율방재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율방재단'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발적 시민 방재 조직으로, 현재 서울시에는 모두 6,897명이 활동하고 있다. 단원들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로, 순찰을 통해 위험요소를 찾아내 사고를 방지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자치구의 '자율방재단 운영 및 조례'에 근거해 구성·운영된다.

25개 자치구의 자율방재단원이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2013년 서울시 자율방재단 연합회 출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자율방재단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여 시민 주도의 자율적인 방재역량을 강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서 자율방재단 시상 및 활동 우수사례 공유

화코자 마련됐다.

서울의 지역 자율방재단은 2008년 강남구를 시작으로 2012년 8월 동작구에 이르기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활동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정기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별 자율방재단의 단장, 부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자율방재단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웃 시도의 자율방재단 등 약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25개 자치구의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5개 자치구의 우수 자율방재단이 상장을 수여하고, 각 수상단체가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에는 최우수 성동구, 우수 노원구, 장려 동대문구·강동구·성북구 자율방재단이 각각 선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 우수사례를 접수하고 재난·방재 안전 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회의 심사를 통해 활동 우수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성동구 자율방재단은 계절별로 활발한 재난 예방 활동과 체계적인 긴급대응반 운영 등의 활동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노원구 자율방재단은 무더위에 생수를 나눔 하는 '힐링

냉장고 운영도움미'와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순찰단' 등의 활동을 적극 수행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동대문구 자율방재단은 계절별로 활발한 재난 예방 활동과 체계적인 긴급대응반 운영 등의 활동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노원구 자율방재단은 무더위에 생수를 나눔 하는 '힐링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구청과 협력해 안전 체험교육, 훈련, 행사 안전 관리 등에 적극 참여했다. 성북구 자율방재단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안전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피해양상이 다양, 복잡해짐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때문에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자율방재단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피해자 구호를 위한 심폐소생술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활동을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한다.

지역주민으로, 각 지역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33,060여 명이 참여해 약 8,100여 건의 안전 예방(예찰)·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빛을받이를 청소하고, 침수우려 등 재

난취약지역을 사전에 살폈다. 수해복구 및 제설활동은 물론, 각종 재난 대응훈련에도 참여했다. 또 무더위(한파)와 쉼터의 운영을 점검하고, 홀몸 어르신을 방문해 안부를 묻는 등의 생활 밀착형 안전 활동도 수행했다.

특히 올해 9월에는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안전한국훈련에 자율방재단 800여 명이 참여해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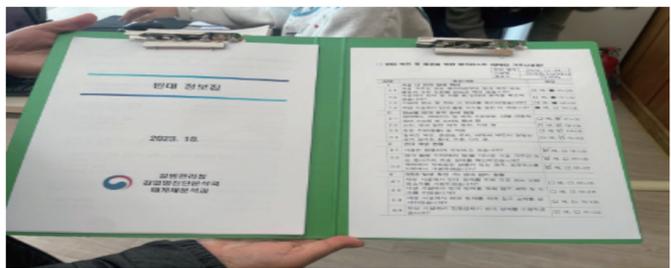
이외에도 각종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고 있다. 지난해 8월 극한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의 복구 과정에 투입됐고, 올해 4월 인왕산 산불피해 현장에서도 산불 진화 물품을 운반하고 현장의 피해를 수습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보태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계절 무척 지역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따뜻한 동행 덕분에 서울시가 더 안전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늘 동행해주시길 바라며, 서울시도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남도, 빈대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점검 강화

노인복지, 장애인거주, 노숙인시설 등 생활시설 중심으로 방역 실시



경남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빈대의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615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상황을 집중점검하고, 발생 차단을 위한 사전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에 발맞춰 다음 8일까지 4주간을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지정해 빈대 발생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빈대 차단을 위해 신속한 방제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로시설 12개소, 노인의료시설 253개소, 주간간 보호시설 204개소 등 노인복지시설 총 477개소와 장애인 거주시설 97개소, 노숙인 복지시설 4개소, 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건강 증진시설 37개소 등 총 61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의 방역상황을 4주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설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정확한 빈대 정보(빈대정보집) 제공하고, 방역상황을 4주간 매주 점

검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빈대 발생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도는 실효성 있는 빈대 방제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자와 함께 4주간 주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며, 주간 단위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 소독 여부 확인 및 빈대 발생 위험장소인 침대매트리스, 카페트, 콘센트 내부 확인, 빈대 발생 예방요령 안내 등이며, 이용자들에게 신고 및 방제 요령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빈대 발생의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국민콜 또는 시·군 보건소로 신고하면 초기에 방역기관에서 빈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취약계층이 빈대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사회복지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방제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김영환 충북지사,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현장점검 나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대비 중요

김영환 도지사는 '23년 11월 15일부터 '24년 3월 15일까지 실시하는 본격적인 겨울철 대책기간을 맞아 14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있는 제설전진기지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북이면 현장에서 제설기 및 제설 삽날 31대, 소금 2,900톤, 염수 20,000L 등 제설장비 관리실태와 제설 자재 확보 현황·비축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대책기간 중 ▲기상상황 집중관리 ▲선제적 상황 판단 및 단계별 대응체계 가동 ▲재해취약지역·시설 사전 예찰 및 점검 등 겨울철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출동 상황관리를 통하여 예방, 대비,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겨울철 강설 대비를 위해 제설 자재 53,121톤, 차량 285대, 인력 21,659명, 장비(제설 삽날, 살포기, 소형 제설장비 등) 2,222대 등을 구비해 철저한 제설 대응 태세를 갖추었다.



또한 도내 노인시설, 복지회관, 읍·면·동사무소 등 한파 쉼터 2,543개소를 지정·운영하여 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마친 김 지사는 "도내 상습폭설 지역과 결빙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장비,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제설제 등 주요 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제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재난은 예상 빈도를 뛰어넘는 돌발성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며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의성군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

경북교육청, 유보통합자문단 운영으로 현장 소통 강화

현장 의견 수렴과 소통에 기반한 유보통합자문단 협의회 실시

경북교육청은 14일 본청 회의실에서 공·사립유치원 교원, 학부모, 특수교사, 학계 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보통합자문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유보통합자문단 협의회는 교육 현장 의견 수렴과 소통에 기반을 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주요 쟁점을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발표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와 쟁점 논의를 함께 추진하는 두 트랙 전략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관리체계 이관을 위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방 단위 업무 이관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고, 이어 유보통합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유보통합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 과정 안내와 영유아·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북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고 자 통합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경북교육청은 교원 연수를 통해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앞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심층 있게 듣고자 유보통합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중식 교육감은 "유보통합 추진에 정책 안내뿐 아니라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영유아를 위한 최선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자문단을 중심으로 원활한 현장 소통 방식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서부교육지원청, 직원들 간 자유로운 소통 나서

교육장, 양 국장, 모든 직원 함께하는 '소중한 한 끼 동행'행사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12월 초까지 교육장과 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직원 간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소중한 한 끼 동행' 행사를 운영한다. 이 행사는 교육장과 직원들 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유연하고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한 교육장과 양 국장은 교육지원청 내 6개 부서 직원과 만나 한 끼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서별로 ▲효과적인 업무 소통을 위한 방안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학교 현장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과 협의 문화 활성화 방안 등 주제를 선택해 운영한다.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행사는 직장 내 의사소통 활성화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상호 존중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경북교육청, 교육기관 최초 '안심 아이 쉼터' 효과 만점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미세먼지와 강우, 폭염 등 기상 상황으로부터 취약한 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한 '안심 아이 쉼터' 사업을 내년에는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 아이 쉼터 사업은 기상 특보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밀폐형 CCTV와 함께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CCTV, 교육 홍보용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충전기, 자동 조영 장치 등 편의 기구를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이러한 사업의 효과성을 인준받아 '안심 아이 쉼터' 사업은 2023년 교육부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2022년 14교, 2023년 16교에 설치를 완료했고, 2024년에는 23교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안심 아이 쉼터 모델

경북교육청, 등교에서 하교까지 사각지대 없는 365일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개발을 위한 전문가 기획단을 구성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는 세부 사양을 결정하고, 공간 구축 컨설팅과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구축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설 사용 만족도에서 보통·만족·매우 만족에 685명(97.9%), 불만·매우 불만에 15명(2.1%)으로 설문조사 됐다. 안심 아이 쉼터는 배움터지킴이 열계를 통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외부인 출입 시 대기 장소, 등·하교 시 승·하차

안전 지도, CCTV, 안심 벨 설치를 통한 학생 대상 범죄 예방)과 학교 교육활동 홍보를 통한 학생-학부모 소통 역할(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학교 교육자료와 홍보자료 송출)을 특목히 하고 있다. 안동여자중학교의 한 학부모는 "맛벌이 부부로 등교 시간보다 일찍 아이를 학교에 태워 줄 때 때거나 추운 곳은 날씨에는 늘 미안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가 안심 아이 쉼터에서 편안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동필 교육안전과장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 직면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공간이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등굣길 교원 깜짝 응원 이벤트 '함께 학교'캠페인 실시



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화)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영덕야성초등학교 정문에서 학교구성원들과 함께 등굣길 교원 응원 이벤트 '함께 학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정착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행사는 영덕야성초등학교 학생회와 학부모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영덕교육지원청에서는 추운 날씨를 감안하여 따뜻한 손난로와 장미꽃 등을 제공하였고, 학교에서는 따뜻한 차 한잔으로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응원하였다. 학생들은 등교하는 선생님들께 '사랑합니다. 선생님! 등 응원의 구호와 함께 고사리 손으로 장미꽃을 전달하였으며 선생님들은 환한 웃음과 함께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 내세요!' 등으로 화답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영덕야성초등학교 한 학부모님은 점점 각박해져 가는 사회와 더불어 선생님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비록 장미 한 송이, 차 한잔이지만 오솔밭이라도 선생님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11월 문화가 있는 날, '행운의 대출 영수증' 25명 추천

경상북도교육청 예천도서관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1월 문화가 있는 날 특별행사로 책 빌리고 대출 영수증을 응모함에 넣으면 25명을 추천해 2024년 다이어리를 선물하는 '행운의 대출 영수증' 행사를 운영한다. 새해가 되면 새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새해 목표한 일을 성취하자는 의미에서 완벽한 계획을 위한 다이어리를 선물해 그들의 목표 성취를 지원한다. 참여방법은 14일부터 29일까지 예천도서관 자료실에서 책을 빌린 이용

예천도서관, 책 빌리고 다이어리 선물 받자

자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고, 추천된 25명 당첨자 발표는 30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문자발송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654-9666)로 문의하면 된다. 예천도서관은 매월 2회(1일, 16일) 이용자 희망도서를 구입하고 매월 초 신간도서를 신속히 구입해 예천군민의 독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천도서관 김정연 관장은 "도서관에 오셔서 책도 빌리고 다이어리 선물도 받아가 2024년 새해 목표도 설정하고 성취하도록 도서관이 응원한다며 군민 독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경기도교육청, 서울대와 함께 IB 국내 정착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14일 서울대학교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정책의 국내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미래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통한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관에서 IB 교육정책과 교원의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서울대 유희림 총장을 비롯해 이경희 제1부교육감, 김성규 교육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실천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두고 IB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IB 관심학교 25교를 선정하고 탐구·실행·성찰 중심의 수업 실천과 국제적으로 인종 중립 평가 시스템을 갖춘 IB 프로그램

을 도입했다. 올해 4,400여 명 교원이 IB 연수에 참여했으며, 특히 관심학교가 빠른 속도로 후보학교 단계로 인증받길 희망함에 따라 11월 말까지 18개의 학교가 후보학교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는 학생이 탐구하며 주도적인 학습자가 되는 것을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세우고, 공교육 발전을 위해 사범대 교육과정의 변화와 IB 연구를 활발하게 해오고 있다. 두 기관은 미래교육 방향을 공유하며 교원의 전문성이 수업과 평가의 변화로 이어져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IB 교육정책 실천 ▲교원의 IB 교육 실천 역량 강화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등의 연구, 개발 협력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IB 교육의 중심에 학생과 교사의 성장을 두고 정책 실현의 다양한 연구 기반을 마

14일 오후 서울대학교와 IB 교육정책 관련 MOU 체결

련한다. 또 현장 교사가 서울대의 IB 교원 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해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가져올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IB DP(Diploma Programme, 고등학교 과정)를 이수한 학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시기를 2028학년도로 보고 있다. 이에 IB DP 이수자의 대학 입학 연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지원 체제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은 IB 교육에 대한 대학의 인식 제고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희림 총장은 협약식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라며 "중심 역할을 하는 도교육청과 서울대의 협력이 뜻 깊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새로운 역량을 키우는데 중요하다"면서 "대학에서 지향하는 역량,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협업도 다 역량 교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B가 도교육청의 중점사업인데 서울대와 도교육청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미래교육, 교육혁신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도 "대한민국의 교육 분야를 선도하는 서울대와 유초중고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경기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정답을 찾기보다 문제 해결력,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공인 받는 IB를 배워보고자 생각했다"며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서 배워 우리 모델을 만든 것처럼 경기도가 한국형 IB 모델을 만든



다는 꿈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가 함께 길을 가자고 해서 기쁨 마음"이라면서 "초중고는 경기도가 새롭게 바뀌어간다. 대학까지 연결돼서 한국교육이 세계에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는 이날 교원양성 시스템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혁신센터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김병삼/기자

“식사는 당뇨 관리의 첫걸음” 광진구, 당뇨 식단 체험회 열어

1:1 맞춤 상담까지...전문 영양사의 밀착 지도로 식단 구성 체험 제공



광진구가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당뇨 식단 체험회’를 개최했다.

당뇨병은 과식이나 불균형한 식사로 악화되기 쉽다. 이에 구는, 개인별 영양 섭취 권장량에 맞는 올바른 식사법을 안내해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식단 체험회를 준비했다.

체험회는 광진구청에서 1, 2부로 진행됐다. 당뇨병 환자와 고위험군 25명을 대상으로 1부는 올바른 식사를 위한 영양 교육, 2부에서는 전문 영양사가 추천하는 당뇨 식단을 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서울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 영양사가 맡았다. 당뇨 관리를 위해 피해야 할 음식, 1일 적정 섭취량, 건강한 생활습관 들이기 등 실생활에 유용한 알찬 정보를 공유했다.

다음으로, 1:1 맞춤 상담을 통한 식단

체험이 이어졌다. 나이, 키, 몸무게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1일 필요 열량을 확인하고,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정 배식량과 식단을 안내했다.

이후, 당뇨 식단 체험 기회가 펼쳐졌다. 반찬으로는 잡곡밥과 미역 된장국, 불고기, 곤약 간장조림, 두부 고추장 지짐 등 기름이 적고 영양가 높은 음식이 제공됐으며, 영양사가 개인별 특성에 맞춰 배식량을 조절 해주었다.

참가자들은 “당뇨 관리의 식단이 중요하다 들었는데, 개인 특성에 따른 관리법을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경호 구정장은 “당뇨병은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는 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구민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금천구, 2024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일반형 일자리 92명(전일제 48명, 시간제 44명), 복지 일자리(위탁 운영) 71명 모집

금천구는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인원은 일반형 일자리 92명(전일제 48명, 시간제 44명), 복지 일자리(위탁 운영) 71명 총 163명이다. 공고일(11.6.) 기준 서울시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장애인 중 취업하지 않은 자이다.

일반형 일자리는 11월 2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 일자리는 위탁수행기관이 선정되면, 12월 중 신청받을 예정이다.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는 주 5일 40

시간, 시간제는 주 5일 20시간 근무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는 구청과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34곳에서 행정 보조업무 또는 복지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2024년 금천구 생활임금인 시급 11,436원을 적용받는다.

복지 일자리 참여자는 위탁수행 기관을 통해 주 14시간(월 56시간) 복지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630원을 적용받는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라며, “장애인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기간	2023. 11. 13.(월) ~ 11. 24.(금)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모집인원	92명(전일제 48명, 시간제 44명)
근무기간	2024. 1. 1. ~ 2024. 12. 31.(12개월)
근무시간	전일제 주40시간, 시간제 주20시간
근무내용	장애인복지 전반의 행정지원 및 서비스 지원 등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 접수
문의처	금천통통복지콜센터(02-2627-1004), 머르신장애인과(02-2627-1923)

한 장애인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일상에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향신/기자

2023년 서초 자치회관 박람회 개최

4년 만에 열리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전시회 및 체험관, 발표회로 구성하여 풍성한 박람회 개최

서울 서초구는 오는 16일까지 서초구청 1층 서초플라자에서 전시회 및 체험관을, 17일에는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에서 발표회를 진행하는 “2023년 서초 자치회관 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로 4년 만에 개최되며 전시회 및 체험관, 발표회로 구성하여 한층 더 풍성하고 볼거리 많은 축제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구는 17개동 자치회관 수강생들의 지난 1년간 열정과 노력이 담긴 작품 160

여점을 엄선해 선보인다.

작품은 자치회관별로 배정된 공간에 전시되며 도자기, 가죽공예 등의 공예작품을 비롯해 서예, 캘리그래피, 수채화, 사군자와 같은 취미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품작이 박람회를 장식한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오후 1시 30분에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에서 ‘2023년 서초 자치회관 발표회’를 개최한다.

수강생들의 무대 발표회, 축하공연, 시상식 등으로 구성되며, 17개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의상 선택부

터 무대 연출까지 직접 챙기면서, 그동안 자치회관에서 갈고닦은 재능을 펼친다. 각 동 주민들도 응원단으로 참여하여 서초구민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즐길 예정이다.

참가 수강생들은 자치회관에서 배운 실력을 뽐내며 ▲아름다운 선율의 오카리나 합주 ▲화려한 자태의 한국무용 ▲경쾌한 리듬의 댄스 ▲스트레스를 타파하는 난타 등 열정과 흥이 넘치는 다양한 무대를 펼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 자치회관 박람회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참여

2023년 서초 자치회관 박람회

11.13(월) ~ 11.17(금)

작품 전시회 2023.11.13(월) ~ 11.16(목) 서초구청 1층 플라자	주요프로그램 2023.11.17(금) 오후 1시 30분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무대공연 발표회 2023.11.17(금) 오후 1시 30분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	--	--

문의: 서초구청 자치회관과 02-2155-8623

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진정한 화합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송파구, 수험생을 위한 교통대책 추진

송파구는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교통혼잡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제 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합동으로 수송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6일 8시 40분부터 17시 45분까지 치러지며, 관내 16개 시험장에서 8,899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송파구에서는 ‘수험생 수송지원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차량 48대가 시험장 인근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주요 교차로 등 중심으로 배치되어 수험생들의 신속한 이동과 안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등교 시간대에는 자치구 공무원과 모범운전자회, 자원봉사자 총 208명이 시험장 주변에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시험장 반경

200m 구간은 집중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으로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일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도록 구청 홈페이지, SNS, 청사 디지털전광판 등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수험생들이 불편함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공사, 교통, 생활소음을 통제하여 안정적인 고 최적의 시험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서강석 구정장은 “수험생들이 편안한 상태로 시험에만 집중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재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기관과 부서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구민들도 교통대책 추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성북구, 2023 서울시 자율방재단 성과보고회 ‘장려상’ 수상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이 한자리에, 서울시 자율방재단 성과보고회 10년 만에 열려



서울 성북구 자율방재단이 14일 서울 시청 다목적실에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10년 만에 열리는 ‘서울시 자율방재단 성과보고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성북구 자율방재단은 2011년에 창단해 2023년 현재 20개 동 43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단원들은 동네를 순찰하면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 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 복구와 구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성과보고회는 자율방재단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해 시민 주도의 자율적인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북구를 비롯해 25개 자치

구 자율방재단이 참석해 활동 실적을 공유했다.

성북구 자율방재단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성북 만들기’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으며, 올 한해 재난 예방, 대응·대비, 복구 3가지 분야에서 3,368명을 동원해 402건의 활동을 수행해 성북의 안전을 책임졌다.

김경남 성북구 자율방재단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자율방재단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더불어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해 준 성북

구청에도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성북구 자율방재단이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더욱 특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자율방재단 활동 덕분에 우리 지역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더욱 안전한 일상을 위해 성북구청이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변함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상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For more success with SANGJU

더 큰 성공을 위한 선택



www.yyg.go.kr

영양 들어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게 영영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물

영양이 흐르는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_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_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_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